



2019 년 9 월 20 일, 독일 하노버

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 2019

iF Design 이 이탈리아, 브라질, 그리스, 케냐 등에서 진행된 5 개의 소셜 이니셔티브에 총 2 만 5 천 유로의 지원금을 전달했다.

iF 는 2017 년부터 연간 총 5 만 유로의 후원금 조성을 통해 “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”를 개최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세계 곳곳의 소셜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있다. 의미 있는 소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이들의 지속과 확산을 돕기 위해 시작된 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는 매년 2 회의 공모를 접수하며, 접수된 소셜 이니셔티브 가운데 iF 팀에서 선정한 일부 프로젝트에는 회당 2 만 5 천 유로의 지원금 후원도 이루어진다.

공모 분야는 UN 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, SDGs)에 따라 기아와 빈곤 퇴치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진흥 및 인권 투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, 현재까지 50 개국 이상의 다양한 기업, 디자인 스튜디오, NGO, 자선단체 및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총 776 개의 모든 소셜 이니셔티브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.

2019 년 상반기에 진행된 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에서는 다음과 같은 참가자들이 각 5 천 유로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.

1. **Bee My Job** | 난민 대상의 양봉 관련 직업 교육 프로젝트 (이탈리아)
2. **Nashulai Maasai Conservancy** | 마사이족과 주변환경 보존을 위한 보호지역 (케냐)
3. **End FGM once and for all** | 할례에 반한 투쟁활동 (오스트리아 및 전 지역)
4. **Design Meets Fa.vela** | 저소득층 기업가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(브라질)
5. **The Echo-Hub-Leros** | 난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(그리스)

이번 회에 접수 된 프로젝트들은 주제에 대한 다양성과 문제 해결 방식이 보여주는 창의성에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다. iF 의 CEO 인 랄프 비그만 (Ralph Wiegmann) 회장은 “iF 에서 진행하는 학생어워드인 iF 디자인 토티먼트 어워드와 함께 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.”이라며 “핵심은 사람들과 이들의 헌신이다. iF 는 사회

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도록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와 같은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그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있다. 또 '디자인'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."고 전했다.

2019 년의 두번째 공모 지원은 2019 년 11 월 20 일까지 접수 중이며,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를 통해 프로젝트를 업로드하여 참여할 수 있다.

***더 많은 정보와 이미지 자료는 아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

Annegret Wulf-Pippig

Press 총괄

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

Bahnhofstrasse 8, 30159 Hannover (Germany)

전화 +49.511.54224-218

이메일 annegret.wulf-pippig@ifdesign.de

www.ifworlddesignguide.com

if 에서 선정한 5 개의 지원 프로젝트

지원금 5,000 유로



프로젝트		Bee My Job - 난민 대상의 양봉 관련 직업 교육 프로젝트
SDGs 분야		불평등 감소 (Reduced Inequalities)
기관/단체		APS Cambalache (이탈리아 알레산드리아)
관련 영상		https://youtu.be/ZcVKaI0v8Dc

이탈리아의 항구도시 제노아에서 약 100Km 가량 떨어진 알레산드리아 지역의 자선 단체 캄팔라체(Cambalache)에서 운영하는 „Bee My Job“ 프로그램은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의 자립을 위한 양봉 훈련 및 직업 연계 프로젝트로,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 기술을 익혀 일자리를 얻고 새로운 지역 사람들과 가까워지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2014 년 이 단체가 설립된 이후, 이 프로그램은 약 170 명의 양봉가들을 양성했고 이탈리아 전역의 약 106 곳에 취업을 연계했으며, 꿀 생산을 통한 수익의 일부는 프로젝트 자금으로 활용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통합 및 적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

“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실향민들에게 농업 및 양봉업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감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. 누구든 쉽게 새로운 직업에 적응 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 과정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자연스럽게 탁월한 방식을 제시합니다.” - 심사평 중에서.

“캄팔라체(Cambalache)와 „Bee My Job“ 팀 모두 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에 선정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번 상을 통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프로젝트가 지닌 힘을 증명해낸 것 같아 기쁩니다.” - 선정 소감 중에서.

지원금 5,000 유로



프로젝트		<u>Nashulai Maasai Conservancy</u> - 마사이족과 주변환경 보존을 위한 보호지역
SDGs 분야		육지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(Life on Land)
기관/단체		Nashulai Maasai Conservancy (케냐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)
관련 영상		https://youtu.be/wrA65F8ZQm8

마사이족의 땅과 주변의 야생동물 생태계가 빈곤과 멸종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면서, 지난 2016 년 나술라이 마사이 관리단 (Nashulai Maasai Conservancy)이 6 천 에이커에 이르는 면적에 동아프리카 최초의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지난 수 세기동안 마사이족이 살아왔던 모습과 동일한 전통적이고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한 이 구역에는 사람과 야생동물을 분리하던 울타리를 제거하여 가축인 소, 양, 염소들이 야생의 코끼리와 코뿔소, 가젤 곁에서 함께 풀을 뜯는 진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.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마사이족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며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변화를 일으키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

*“이 프로젝트는 마사이 땅의 자율적인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
탁월한 아이디어로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낸 훌륭한 사례입니다.” - 심사평 중에서.*

*“다국적의 if 팀에서 우리 아이디어에 기꺼이 지원금을 후원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놀랍고도
감격스럽습니다. 저희는 앞으로도 생태계와 천연자원 보존및 재생, 마사이 공동체의 빈곤 극복을
목표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.” - 선정 소감 중에서.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neSH6F0pHfs>*

지원금 5,000 유로



프로젝트		End FGM once and for all - 할레에 반한 투쟁 활동
SDGs 분야		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 (Gender Equality)
기관/단체		Desert Flower 재단 (오스트리아 비엔나)
관련 영상		https://vimeo.com/321932803

지금도 약 2 억명 이상의 소녀들과 여성들이 할레(생식기 훼손)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, 매년 350 만 명의 어린 소녀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의식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. 할레 의식(FGM, Female genital mutilation)은 특정 종교나 문화, 전통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는 관습으로,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. 전직 슈퍼모델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와리스 디리 (Waris Dirie)는 다섯 살 때 원치 않는 할레에 의해 희생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 년동안 이 범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. 그녀는 Desert Flower 재단을 설립하여 영국 브랜드인 코코드메르 (Coco de Mer), 사진작가인 란킨(Rankin)과 함께 할레 금지 및 종식을 위해 투쟁합니다.

“할레 근절은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.” - 심사평 중에서.

“이번 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 2019 선정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. 지원금 전액은 곧 개교를 앞두고 있는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최초의 'Desert Flower 학교'의 설립 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. 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독립성과 주체성을 키우고 집단 압력에서 벗어나게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. 이 여정에 힘을 실어준 iF 에게 감사를 전하며 우리는 할레 근절을 위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.” - 선정 소감 중에서.

지원금 5,000 유로



프로젝트		Design Meets Fa.vela - 저소득층 기업가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
SDGs 분야		경제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증진 (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)
기관/단체		Greco Design (브라질 벨로리존테)
관련 영상		https://vimeo.com/333975971

브라질의 빈민가 부의 부당하고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. 파벨라(Fa.vela)는 이러한 저소득 지역사회의 경제적, 사회적 발전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기관으로, 빈민가의 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'Design Meets Fa.vela'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최근 3년 간 약 90 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개발되었으며,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빈민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.

*“빈곤은 일반적으로 대를 이어 내려가기 때문에 벗어나기 힘든 덫과 같습니다.
이 프로젝트는 그레코디자인(Greco Design)이 제시하는 '디자인을 통한 빈곤 퇴치'라는
강력하고도 혁신적인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” - 심사평 중에서.*

*“우리의 주요 프로젝트로 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 2019 에 선정되어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
다른 어떤 수상보다도 뿌듯함이 큼니다.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. 이 수상이 앞으로
지역사회 활성화와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” - 선정 소감 중에서.*

지원금 5,000 유로



프로젝트		The Echo-Hub-Leros - 난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
SDGs 분야		교육기회 보장 및 증진 (Quality Education)
기관/단체		Echo100Plus (오스트리아 비엔나 / 그리스 라키)
관련 영상		https://youtu.be/iWS6BsWJLjg

Echo100Plus 는 오스트리아에 기반을 둔 NGO 로 그리스 지역과 그곳의 난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. 이 단체는 2016 년 10 월 레로스(Leros)라는 섬에 난민들을 위한 "Echo-Hub-Leros" 라는 교육 센터와 커뮤니티를 설립하고, 이곳에서 전문적인 강사 및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응급 의료부터 교육, 노동, 여가 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을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특별한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매일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을 실시합니다. 이 시설은 학생들이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

“음악, 컴퓨터, 언어 등의 교육 과정은 거주지를 떠나 온 난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. 또한 Echo100Plus 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난민과 현지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,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원활하고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.” - 심사평 중에서.

“그리스 해안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더이상 난민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으며,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그 관심이 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 2019 선정은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자극이 되며 큰 힘을 주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” - 선정 소감 중에서.